

미국의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과 시사점

이 효 정* · 윤 자 영**

1. 미국 정부의 원조 현황 및 담당 기관

1.1. 미국의 원조 현황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총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따르면 DAC 회원국¹⁾의 2020년 ODA 총 지원액²⁾은 1,612억 달러로써,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평균 0.32%이다. 미국의 지난해 대외원조 규모는 약 3억 4,725만 달러로, 전 세계 ODA의 약 22%를 차지하여 DAC 회원국 중 1위를 기록, 명실상부한 최대 공여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ODA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 지원액은 2010년 대비 2020년 2.4% 증가하였고, ODA/GNI는 0.15%(2019년)에서 0.17%(2020년)로 소폭 상승하였다. ODA/GNI는 DAC 회원국 평균인 0.32% 보다 낮지만, 지원액의 수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표 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hyojunglee@kre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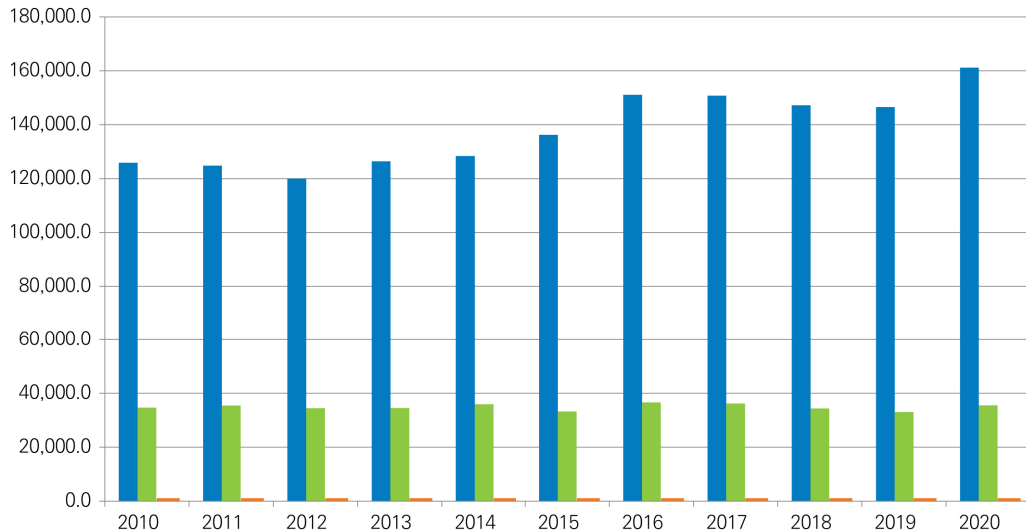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위촉연구원(527yjj@krei.re.kr)

1)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EU,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총 30개 회원국임. 저자 주.

2) 2020년 잠정치. 저자 주.

〈그림 1〉 전 세계 대외원조 지원액 및 미국의 대외원조 지원액 변화추이(2010~2020)

단위: 백만 달러



| | | | | | | | | | | | |
|-----------|-----------|-----------|-----------|-----------|-----------|-----------|-----------|-----------|-----------|-----------|-----------|
| ■ DAC 회원국 | 125,855.5 | 124,734.0 | 120,006.6 | 126,380.8 | 128,380.9 | 136,180.3 | 151,045.1 | 150,737.3 | 147,204.0 | 146,482.0 | 161,172.1 |
| ■ 미국 | 34,641.0 | 35,430.9 | 34,411.8 | 34,496.1 | 35,850.5 | 33,248.3 | 36,551.1 | 36,200.8 | 34,390.2 | 32,980.7 | 35,474.6 |
| ■ 비중(%) | 27.5 | 28.4 | 28.7 | 27.3 | 27.9 | 24.4 | 24.2 | 24.0 | 23.4 | 22.5 | 22.0 |

주: 2020년 수치는 OECD 잠정통계 활용함. 비중(%)은 전체 원조 금액 대비 미국의 원조 지원금액을 의미함.

자료: 1) OECD DATA(www.oecd.org/statistics)(검색일: 2021. 9. 2)

2) OECD Statistics (www.stats.oecd.org)(검색일: 2021. 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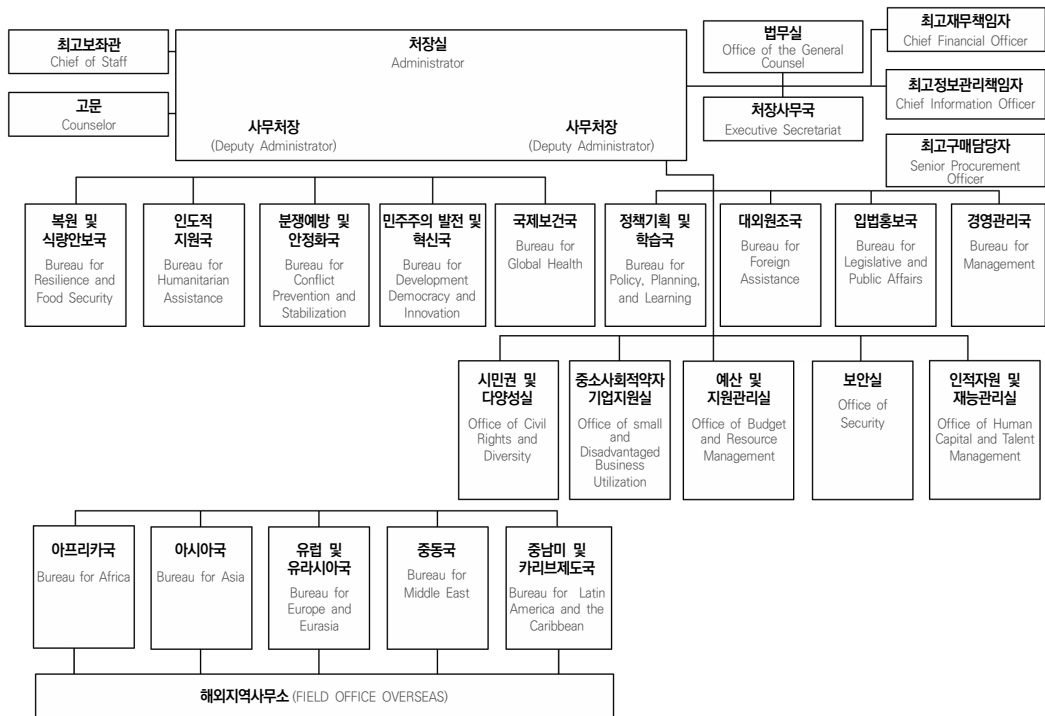
1.2. 미국의 대외원조 담당 기관

1.2.1. 미국 국제개발처의 설립 및 조직 현황

미국은 1995년 국제협력처(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를 설립하고 대외활동본부(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FOA)와 군사안보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외원조 부문에 있어 관련 업무를 추진 해왔다. 이후 1961년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장기 원조 기관 설립 규정(Foreign Assistance Act)」이 제정되고, 케네디 대통령이 외국원조법안을 승인하며 미국 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설립되었다. USAID는 독립된 연방 정부 기관이지만, 형식적으로 국무부 산하이며 국무장관의 전반적인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활동하는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다.

조직은 처장(Administrator) 이하 9개국 기능국, 5개 실, 5개 지역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국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및 유라시아, 중동, 중남미 및 카리브제도도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에 총 87개(2020년)의 현지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기능국은 섹터별로 복원 및 식량안보, 인도지원, 분쟁예방 및 안정화, 민주주의 발전 및 혁신, 국제보건, 대외원조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2〉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조직도



자료: USAID (<https://www.usaid.gov/>) (검색일: 2021. 9. 27.)

1.2.2. USAID의 활동 목표

USAID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확산을 통한 미국 외교정책상의 이익실현, 개도국의 경제 발전 지원, 빈곤감소, 재난 복구 지원을 활동의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활동 분야로는, 농업 및 식량안보, 민주주의·인권 및 거버넌스, 경제성장 및 무역, 교육, 환경·에너지·인프라,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국제보건, 인도주의적 지원, 혁신·기술·조사, 물 및 위생, 위기

및 분쟁지역 등이 있으며,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대통령 직속 Feed the future³⁾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USAID는 가정, 지역사회 및 국가를 변화시켜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글로벌 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강력한 지진에 대응하고 농민의 생산 및 판매활동 지원 등이 해당된다. USAID는 미국 국가안보전략(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과 국무부 및 USAID 공동전략계획(Joint Strategic Plan, JSP)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개도국의 자립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정책체계(Policy Framework)를 마련하였다⁴⁾.

1.3. 바이든 정부의 원조 방향⁵⁾

1.3.1. 바이든 정부의 2022년 예산

2021년 7월 발표된 미 국무부와 USAID에 대한 2022년 예산 요청액은 585억 달러이며, 이 중 USAID의 예산은 47%인 277억 달러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1%(29억 달러) 상승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에 따라 청정에너지 글로벌 시장을 개발하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USAID에서 5년 동안 4억 달러(2022년 8,000만 달러 포함)의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3.2. 바이든 정부 대외 원조의 주요 방향과 프로그램

- ① 기후변화 극복: USAID의 기후변화 프로그램은 지역 단위의 국가 적응 계획 및 우선순위를 지원하고 있으며, 6억 달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 혁신, 기후 탄력성, 탄소 포집 및 저장, 첨단 에너지 시스템을 촉진하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USAID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비교우위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식량안보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아 및 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USAID의 이니셔티브로써,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함.

4) USAID(2019) 2p 참고.

5) USAID의 2022년도 회계 예산 자료 참조함(<https://www.usaid.gov/news-information/fact-sheets/fiscal-year-2022-presidents-discretionary-funding-request>)(검색일: 2021.9.10.).

- ② 민주주의 발전과 권위주의에 대한: 민주주의, 인권 및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퇴보를 막고, 부패와 불법 자본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인권과 법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다자간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여기에 28억 달러를 지원한다. 특히 디지털에 대한 접근을 억압하는 것, 허위정보에 맞서 싸우기 위해 독립 언론 지원을 확대한다.
- ③ 중미로부터 이주의 근본 원인 해결: 중미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부패 퇴치, 안보 개선, 기후변화 적응, 인권 증진, 정부 책임 강화에 4년간 4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며, 2022년 첫 단계로 8억 6,1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장기적, 구조적인 문제와 사회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의 자생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④ 글로벌 보건 리더십 강화: 아동 및 산모 사망 방지, 전염병의 예방·탐지·대응, HIV/AIDS 등의 극복을 위해 39억 달러를 지원한다. COVID-19 대응을 위해 글로벌 안보의 제(GHSA)를 발전시키며, 전염병에 대한 대응력·회복력을 구축함으로써 전염병에 대해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회복하는데 7억 4,5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ACT-Accelerator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COVID-19 대응을 주도하는 다자기구에 3억 달러 지원이 포함된다.
- ⑤ 인도주의적 지원 강화: 특히 COVID-19 전염병에 대한 지원, 자연재해 등의 재난까지 포함하여 63억 달러를 지원하며, USAID에 100억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 예산을 배분하였다. 특히 시리아, 예멘, 베네수엘라의 장기간의 위기 상황,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의 단기 위기 상황 등에 지원한다.
- ⑥ 경제성장 확대: 포용적 경제 성장 프로그램은 미국 제품을 포함하여 시장을 개방하고, 불안정, 폭력 및 대량 이주의 가능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49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접근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 클라우드 소싱을 허용하고 원격 학습, 원격 의료, 부패 퇴치를 위한 접근 방법이 적용될 것이다. Prosper Africa⁶⁾에 8,0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아프리카 전역에서 미국의 비즈니스 또는 기업을 연결하는 것으로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성평등(Gender Equality and Equality Action Fund, GEEA) 예산에 2억 달러를

6)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한 '아프리카 번영(Prosper Africa)' 프로젝트는 원조 지원, 투자 및 무역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미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지원, 아프리카 투자 확대 등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경제·상업적 개입이 주된 특징임.

포함하여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 젠더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 소외계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⑦ 회복력 및 식품 안전성 향상: Feed the Future를 통해 빈곤, 기아, 영양실조 극복을 위해 글로벌 식량안보 전략에 10억 달러를 지원한다. 또한 COVID-19 팬데믹과 기후 변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취약성 극복, 회복력 향상을 위해 2억 9,400만 달러를 지원한다.
- ⑧ 미국의 파트너국가 지원과 평화 증진: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가자지구 지원에 1억 8,5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아프리카의 지역 평화와 안정, 안보,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 향상을 위해 수단의 민간 주도 민주주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시리아의 안정 또한 주요 지원대상이다.
- ⑨ 사람에 대한 투자: USAID의 국내 및 해외 인력을 확대하여 외무부 1,850명, 행정직 공무원 1,600명을 정규인력으로 고용한다. USAID의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전략 계획을 구현하고, USAID 직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본부 및 전 세계에서 다양하고 평등하며 포용적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미국 농업부문 원조 현황 및 지원 이니셔티브

2.1. 미국의 농업부문 원조 현황

미국의 농업부문 양자 지원은 지난 5년간 평균 12억 달러 규모로, 국가 전체 양자 지원총액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표 1). 농림수산 분야 예산은 2015년 14억 9,500만 달러에서 2019년 9억 1,800만 달러로 약 38% 감소하였다. CRS 코드상⁷⁾ 분류된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2019년 전체 지원액 중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가 5억 8,00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개발 부문에 2억 4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임업과 수산업에는 각각 290만 달러, 28만 달러로 농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비율을 보이고 있다.

7) Credit Reporting System: OECD DAC 통계 대분류의 하위코드로서 특정 원조분야 하부에 원조 목적별로 부여됨. 농림수산분야는 생산부분(310)에 속하며, 농촌종합개발과 관련하여 다분야(43040)도 통계에 포함함. 저자 주.

〈표 1〉 미국 농림수산분야 개발협력 지원현황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전체 지원 총액 | | 29,403.454 | 31,068.570 | 32,022.583 | 31,215.125 | 29,544.040 |
| Ⅲ. 생산부분 총액 | | 1,789.973 | 1,700.255 | 1,528.532 | 1,260.629 | 1,049.717 |
| Ⅲ.1. 농림수산업 총액 | | 1,495.604 | 1,458.059 | 1,211.898 | 1,044.815 | 918.419 |
| Ⅲ.1.a 농업 | | 1,491.967 | 1,444.266 | 1,208.026 | 1,039.378 | 915.233 |
|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 | 290.151 | 304.903 | 305.151 | 442.543 | 580.019 |
| 31120. 농업개발 | | 914.439 | 962.339 | 726.230 | 475.606 | 204.671 |
| 31130. 농지개발 | | 1.260 | 2.419 | 3.157 | 1.132 | 0.167 |
| 31140. 농업용수자원 | | 118.313 | 7.656 | 2.009 | 5.655 | 7.317 |
| 31150. 농업관련 기자재 | | 0.009 | 9.757 | 8.876 | 0.571 | 1.494 |
| 31161. 식량생산 | | 4.198 | 4.804 | 7.887 | 6.795 | 12.437 |
| 31162. 경제작물/수출작물 | | 1.651 | 3.781 | 3.211 | 1.351 | 1.534 |
| 31163. 축산 | | 2.011 | 14.946 | 5.462 | 3.447 | 0.490 |
| 31164. 농지개혁 | | 0.997 | 10.501 | 19.030 | 9.002 | 2.507 |
| 31165. 농업개발 | | 138.967 | 111.387 | 118.748 | 84.878 | 88.403 |
| 31166. 농업지도 | | 0.057 | 0.128 | 0.087 | .. | .. |
| 31181. 농업관련 교육/훈련 | | 2.657 | 2.706 | 0.832 | 0.517 | 0.481 |
| 31182. 농업연구 | | 5.177 | 2.797 | 3.707 | 3.981 | 4.130 |
| 31191. 농업관련 서비스 | | 1.241 | 0.838 | 1.475 | 1.455 | 1.940 |
| 31192. 작물보호, 수확 후 관리 및 해충관리 | | 0.394 | 0.708 | 0.380 | 0.007 | 0.007 |
| 31193. 농업 금융 서비스 | | 9.235 | 1.711 | 0.042 | 0.319 | 0.286 |
| 31194. 농업 협동조합 | | 0.941 | 1.219 | 0.424 | 1.431 | 3.561 |
| 31195. 축산 진료 | | 0.270 | 1.667 | 1.317 | 0.691 | 5.788 |
| Ⅲ.1.b 임업 | | 2.283 | 4.915 | 0.440 | 4.216 | 2.902 |
| 31210. 임업정책 및 행정관리 | | 0.303 | 3.004 | 0.113 | 1.648 | 1.164 |
| 31220. 임업개발 | | 1.221 | 1.375 | 0.260 | 0.930 | 0.996 |
| 31261. 연료용 목재/숯 | | .. | .. | 0.010 | .. | .. |
| 31281. 임업 교육/훈련 | | .. | .. | 0.056 | 1.625 | 0.697 |
| 31282. 임업연구 | | 0.758 | 0.536 | .. | 0.013 | .. |
| 31283. 임업서비스 | | .. | .. | .. | .. | 0.045 |
| Ⅲ.1.c 어업 | | 1.355 | 8.878 | 3.432 | 1.221 | 0.284 |
| 31310. 어업정책 및 행정관리 | | 0.574 | 8.183 | 2.642 | 0.631 | 0.157 |
| 31320. 어업개발 | | 0.473 | 0.580 | 0.571 | 0.529 | 0.126 |
| 31381. 어업 교육/훈련 | | 0.195 | .. | 0.068 | .. | .. |
| 31382. 어업연구 | | .. | .. | .. | .. | .. |
| 31391. 어업서비스 | | 0.112 | 0.115 | 0.151 | 0.062 | .. |
| 43040. 농촌개발 | | 13.372 | 41.470 | 97.052 | 56.920 | 1.232 |

주: 약정액 기준

자료: OECD 통계(<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1.9.10.)

2.2. 미국의 농업분야 지원 이니셔티브(Feed the Future)

2007~2008년의 식량 가격 급등은 세계 식량안보의 분수령이 되었다. 밀, 쌀, 옥수수과 같은 주식(staple food)의 비용이 치솟았고, 취약 지역의 기아와 빈곤을 악화시켰으며 이는 세계 기아 인구를 10억 명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국제사회는 농업의 혁신적 전환을 통해 전 세계 기아와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해 글로벌 영양 및 식량 안보에 새로운 투자를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민간 부문, 글로벌 과학 및 연구 단체, 공여 기관, 개발도상국 정부, 시민 사회를 포괄하여 USAID가 주도하는 범정부 이니셔티브인 Feed the Future를 시작하였다. 본 이니셔티브는 소농과 그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후 2016년 세계 식량 안보법(The Global Food Security Act of 2016, GFSA)에 Feed the Future를 법률로 정하였으며, 이는 세계 기아 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행동 촉구를 명시하고 있다. GFSA를 통해 미국은 책임과 투명성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각 기관 간 참여를 확장함으로써 Feed the Future 이니셔티브를 강화하였고 이 GFSA는 2023년까지 재승인된 상태이다(이효정 2015).

2.2.1. Feed the future의 협력 대상국 및 사업 현황

미국 정부는 Feed the Future를 통해 식량 안보 및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 아시아, 중앙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표 2).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 네팔,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우간다, 중남미에서는 과테말라, 온두라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 작물과 세부분야, 지원전략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Feed the Future의 핵심 전략인 식량 안보 강화와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특히 아동·청년·여성의 영양 개선 및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 2〉 Feed the future 협력 대상국 및 주요 전략

| 지역 | 국가명 | 주요 대상 또는 분야 | 주요 대상지 | 주요 전략 |
|------|-------|--|---|--|
| 아시아 | 방글라데시 | 수경재배, 원예, 어업, 가축, 쌀, 콩 | 남부지역21개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성 및 소득증대 • 가치사슬 투자 • 모자 영양상태 개선 • 정부 정책 및 기획 역량 강화 |
| | 네팔 | 채소, 렌즈콩, 염소, 옥수수, 쌀 | Lumbini, Karnali, Sudurpaschim 등 21개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가치사슬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 가치사슬 성장 및 다양화 촉진 • 소득증대 • 식량 안보 강화 |
| 아프리카 | 에티오피아 | 병아리콩, 커피, 낙농, 가축, 옥수수, 가금류, 감자, 참깨, 콩, 고구마 | Afar, Amhara, Oromia, Somali, Tigray 지역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과 가축 생산성 및 다양성 증대 • 비즈니스 지원 환경 개선 • 특별히 청년과 여성을 위한 고용 및 기업가 정신 증대 • 도시 기회와 관련한 시장 접근 기회 확대 |
| | 가나 | 동부콩, 옥수수, 대두, 고부가가치 채소 및 과일, 어업, 땅콩, 시어버터 | 북부, 북동부, 북서부 지역(해안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로 하는 가치사슬의 시장성 개선 • 농업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 추진 • 해양 수산물 관리 개선 • 취약계층 회복력 강화 |
| | 케냐 | 원예, 축산, 낙농 | 9개의 서부의 다우지역, 3개의 동부 반건조지역, 5개의 북부 건조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시장 시스템 및 생계 개선 • 농업 생산 및 생산성 확대 및 다양화 • 자금조달 및 투자자본 접근성 증대 • 농업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부문 역량 |
| | 말리 | 수수, 사탕수수, 쌀, 가축, 원예, 지방종자, 옥수수 | Sikasso, Mopti and Timbuktu 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로 하는 가치사슬 개선 • 높은 수준의 영양실조 및 저조한 식이 다양성 문제 해결 • 농업 무역 및 투자 환경 개선 • 농가, 민간, 시민사회, 공공기관 역량 강화 |
| | 니제르 | 가금류, 양과 염소, 동부콩 | 니제르 전 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및 영양 개선 • 농업 및 가축 생산을 위해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개선 • 기관 및 조직의 거버넌스 강화 • 여성과 청소년의 역량 강화 |

(계속)

| 지역 | 국가명 | 주요 대상 또는 분야 | 주요 대상지 | 주요 전략 |
|-----|-------|--------------------------------|---|---|
| | 나이지리아 | 수경재배, 동부콩, 쌀, 대두, 옥수수, 양과 염소 | 11개 주에 걸쳐있는 33 지방 정부 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작농과 자원을 연결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시장 개발 • 가정 및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 • 여성과 아동 영양 개선 |
| | 세네갈 | 쌀, 옥수수, 수수, 원예, 양과 염소, 고구마, 어업 | Senegal River Valley, 남부 삼림 지대 및 Sine Saloum 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농업 분야 성장 증대 • 연안 해양 수산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호 개선 • 핵심 가치사슬에서 생산성 및 시장 연결 증대 • 여성과 아동 영양 개선 |
| | 우간다 | 콩, 수수, 옥수수, 가축, 낙농, 커피, 채소 | 북부, 동부 및 남서 지역의 38개 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주도 성장 촉진 • 가정과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 • 특히 여성과 아동을 위한 영양 개선 • 시장 연결 및 성장 촉진 |
| 중남미 | 과테말라 | 커피, 원예 | Totonicapán, San Marcos, Huehuetenango, Quetzaltenango and Quich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주도형 농업 발전 강화 • 만성 영양실조 예방 및 치료 • 식품 및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특히 여성과 아동을 위한 영양 개선 |
| | 온두라스 | 커피, 과일 및 채소 | La Paz, Intibucá, Lempira, Ocotepeque, Copán and Santa Bárbar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주도형 농업 발전 강화 • 식량 안보를 개선하는 핵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 역량 구축 • 모자 영양 개선 • 충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

자료: Feed the Future (<https://www.feedthefuture.gov/>)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2.2. Feed the future의 사업 추진 경과

Feed the Future는 성과지표에 따라 크게 농업 생산성 향상, 시장 확대, 농업 및 영양 관련 활동의 투자 증가, 영양 서비스 개선, 역량강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8~19년 수행결과에서는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개선된 농업 기술 및 운영 경험을 농업 시스템에 적용한 개인별 규모는 2019년 745만 명이다. 전체 규모에서 남녀 비율은 남성 40%, 여성은 34% 가량으로(통계상 무효 처리된 비율 26%), 이는 전년 대비 남성이 1% 감소한 반면 여성

은 3% 증가한 수치로써, Feed the Future에서는 여성 농민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술지원을 통해 생산 여건이 나아진 농경지 면적을 살펴보면, 집중적 관리 면적(intensively-managed hectares)과 경작지·경작된 목초지(cropland or cultivated pasture)가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집중적 관리 면적과 경작지·경작된 목초지의 경우 2018년 대비 2019년 모두 감소한 규모를 보이고 있는 반면, 방목지, 보전·보호구역, 담수·해양 생태계로 분류된 광범위하게 관리되는 면적(extensively-managed hectares)은 2018년 2,235ha에서 2019년 1만 2,383ha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영양과 무관한 식량 안보(non-nutrition-related food security) 교육 이수자의 경우 2019년은 1,313명으로 지난해 다소 감소하였다. 남녀 수혜 대상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은 남녀 비율은 차이가 16%p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남녀 비율의 격차가 9%p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식량 안보관련 교육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eed the Future 사업수행 결과 지표 중 6번은 생산자(producer) 및 기업(firm)의 성과지표로써,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생산자와 업체의 총 연매출을 집계하였다. 본 지표에서 생산자는 농업, 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를 의미하고, 기업은 공급업체, 유통업체, 가공업체 등과 같이 농산물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연계되어 있는 민간부문의 농업 관련 기업이다.⁸⁾ 또한 소농(smallholder)생산자는 5ha 이하의 경작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단위의 가축(소 10마리, 젖소 2마리, 암양 5마리, 암돼지 2마리, 육계 50마리)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 등이 포함된 생산자를 의미한다.⁹⁾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생산자 및 기업의 연간 총 매출액의 경우 2018년(16억 8,300만 달러) 대비 2019년은 30억 5,100만 달러로 약 81%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 2019년 기업의 판매량은 15억 2,500만 달러로 2018년 대비 큰 상승폭을 보이며, 같은 해 생산자 및 기업의 총 연매출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었다.

식량안보 및 영양 부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신규 민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은 4억 2,900만 달러로 2018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8) USAID(2019), 105p 참고.

9) USAID(2019), 52p 참고.

〈표 3〉 Feed the future 분야별 사업수행 결과(2018-2019)

| 지표 | 2018 | 2019 |
|---|-----------------|-----------------|
| 1. 개선된 기술 및 운영경험을 농업 시스템에 적용한 개인 수 | 9,797,567 | 7,452,819 |
| - 총 생산자 수 | 9,607,746 | 6,873,014 |
| - 남성(%) | 41% | 40% |
| - 여성(%) | 31% | 34% |
| - 유효하지 않음(%) | 28% | 26% |
| 2. 개선된 기술 및 운영경험이 적용된 면적(ha) | | |
| - 집중적 관리 면적(예: 농경지, 경작된 목초지, 수경재배) | 8,440,001 | 6,254,202 |
| - 경작지 또는 경작된 목초지 | 8,439,960 | 6,251,162 |
| - 광범위하게 관리되는 면적 (예: 방목지, 보전·보호 구역, 담수 또는 해양 생태계) | 2,235 | 12,383 |
| 3. 식량 안보 교육 학위 수여자(영양 제외) | 1,324 | 1,313 |
| - 남성(%) | 58% | 54% |
| - 여성(%) | 42% | 45% |
| 4. 영양 전문 교육 이수자 | 612,855 | 307,788 |
| - 남성(%) | 26% | 24% |
| - 여성(%) | 69% | 35% |
| - 유효하지 않음(%) | 5% | 41% |
| 5. 특별 영양식을 지원받은 5세 이하(0~59개월) 아동의 수 | 28,491,767 | 27,224,567 |
| - 남성(%) | 34% | 37% |
| - 여성(%) | 37% | 38% |
| - 유효하지 않음(%) | 29% | 25% |
| 6. 생산자 및 기업의 연매출 | \$1,683,248,584 | \$3,051,692,633 |
| - 소농(smallholder) 생산자 | \$1,625,768,960 | \$1,508,226,981 |
| - 비소농(non-smallholder) 생산자 | \$5,280,227 | \$18,253,145 |
| - 기업 | \$52,199,396 | \$1,525,212,507 |
| 7. 농업 관련 자금 조달 가치 | \$429,134,649 | \$486,177,126 |
| - 현금 부채 | \$428,950,587 | \$473,177,126 |
| 8. 식량안보 및 영양 부문에 대한 신규 민간 투자 가치 | \$234,489,309 | \$429,928,178 |

자료: USAID(2019), USAID(20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3. 평화를 위한 식량지원(Food for Peace) 추진 전략

미국 정부의 세계 식량안보 전략은 Feed the Future에 참여하는 이해관계기관의 참여로 개발되었으며, 특히 영양, 회복력 및 식량 중심의 개발을 지원하는 Feed the Future의 비전과 같은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USAID의 평화를 위한 식량지원(Food for Peace, 이하 FFP)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 목표에 맞춰 기아와 극심한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해 자체 전략과 목표를 검토하여 「식량 지원 및 식량 안보 전략(2016-2025)」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였다. FFP의 새로운 비전은 '굶주림과 빈곤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존엄, 평화, 안전 속에서 사는 세상'을 유지하지만, 이전의 '식량 불안정 감소'라는 목표에서 '식량 안보를 개선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를 더 확장하였다. 또한 '영양 안보'를 목표에 포함하여 영양가 있는 식품의 안정적인 가용성 및 접근과 함께 개선된 식량 안보 결과에 기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영양, 위생 및 건강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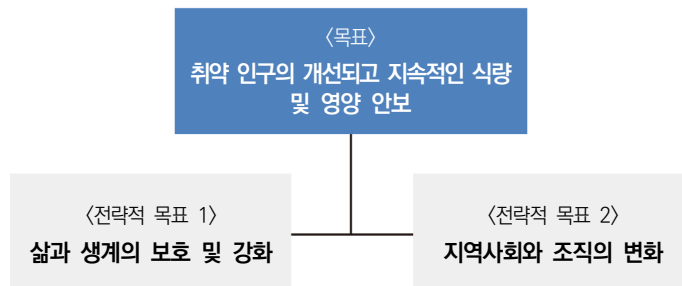
FFP 전략의 신규 전략은 전 세계 기아, 식량 불안정, 영양실조를 극복하기 위한 Feed the Future와 미국정부의 세계 식량 안보 전략의 비전, 목표 및 목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본 전략은 현물 및 현금 기반의 식량 지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농업법 중 「평화를 위한 식량원조법(Agriculture Act of 2014)」 및 세계 식량 안보법(GFSA)의 제 7조에서 규정된 권한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FFP 신규 전략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FFP의 개발 프로그램은 SDGs의 17개 목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 중 빈곤퇴치(Goal 1), 기아종식(Goal 2), 성평등(Goal 5)의 3가지 목표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특히 SDGs 1번은 "빈곤퇴치"를 목표로, 하루 1.9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를 2030년까지 근절하고 국가적 정의에 따라 모든 차원에서 빈곤 인구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빈곤층을 위한 경제적 자원, 토지, 금융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최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이 오랫동안 FFP의 업무의 핵심이었고, 신규 전략에서는 빈곤 감소 노력을 위해 FFP의 역할로서 개발 프로그램 설계시 위험을 줄이고 가계 자산을 보호하며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강화할 기회를 찾을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FFP 프로그램은 극심한 빈곤을 종식시키고 취약한 지역 사회의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발 행위자(development actors)를 위해 특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더불어 FFP는 상황별 및 다중 부문별 개발 프로그램화를 촉진함으로써 USAID의 탄력적 정책 및 프로그램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FFP는 그의 파트너들과 사회적, 정치적 취약성, 성별 및 청소년 역할과 기후변화를 포함한 위험 요소에 대한 개념을 확장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SDGs 5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의 종식과 조혼 및 여성 할례와 같은 유해한 관행의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권리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2009년에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은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이 식량 및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트너 국가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젠더 주류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젠더 정책을 발표했다. FFP는 양성평등과 포용성을 농업 개발 및 식량 안보 프로그램의 목표로 설정하고 생산성 개선, 식량 안보 투자의 효율성 증대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FFP의 새로운 전략은 SDG 5 및 미국 정부의 성'평등 및 여성의 권한 부여'를 목표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FFP 활동에서 여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가 반영된 것이며, 모든 개발 활동에서 성평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파트너 기관에서 현지 직원의 고용과 교육 시 성평등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였다.

〈그림 3〉 Future For Peace의 식량 및 영양 안보를 위한 전략적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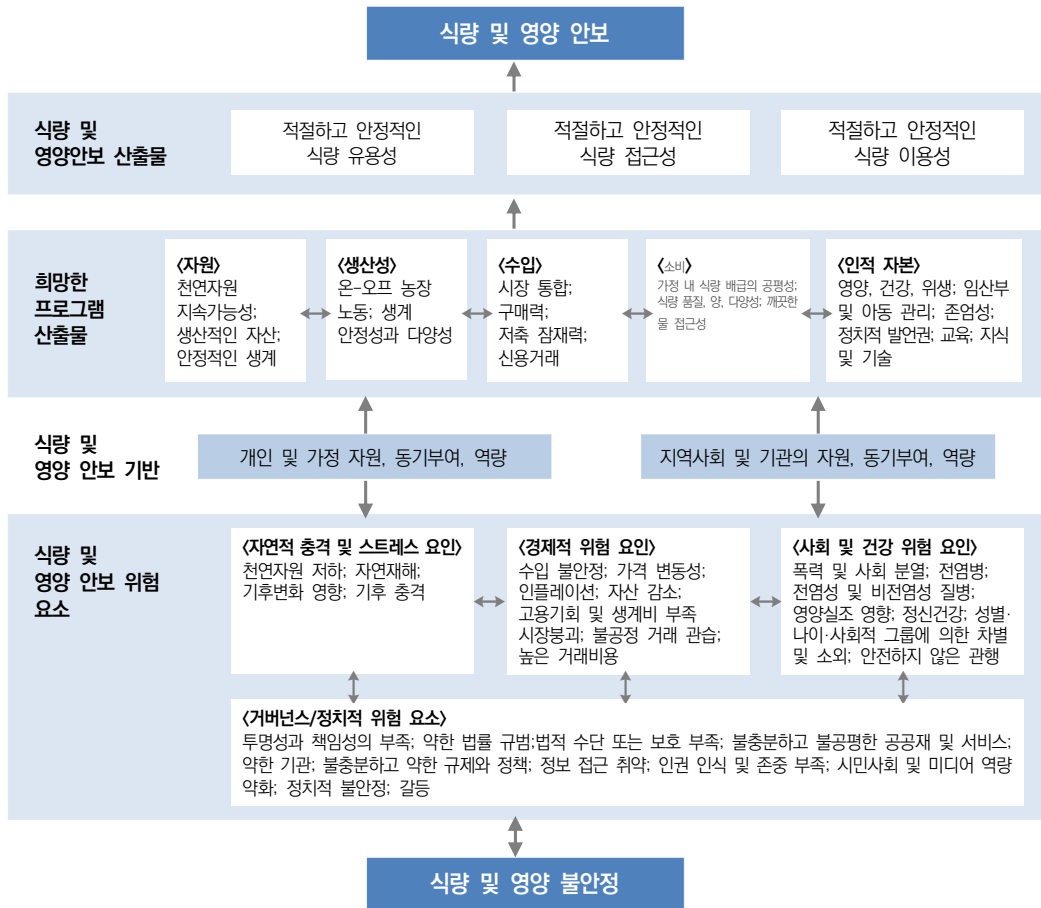


자료: USAID(20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과 같이 FFP는 식량 및 영양 안보의 목표 달성을 위해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삶과 생계의 보호 및 강화(Lives and Livelihood Protected and Enhanced)”, 둘째 “지역사회와 조직의 변화(Communities and Institutions Transformed)”

이다. 본 전략은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와 조직의 관점에서 식량 및 영양 안보의 기초를 설명하는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반영하고 있다(그림 4). 두 가지 전략 목표 중 전자는 삶과 생계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후자는 지원을 제공하는 현지 파트너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림 4) Future For Peace의 식량 및 영양 안보 프레임워크



자료: USAID(2016). p. 7 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FFP 전략 목표 1번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만성 빈곤과 기아로 인한 취약 계층의 삶과 생계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현물 식량, 현금 또는 식품 상품권 지급, 전문적이고 영양가 있는 보충 및 치료식(therapeutic feeding) 제공을 통해

식량 부족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즉각적인 식량 및 영양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본 개발 프로그램은 만성적으로 식량공급이 불안정한 지역 사회, 특히 반복적인 충격적 사태로 인해 인도적 지원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지역 사회의 삶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FFP 전략 목표 2번은 지역사회와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여 비상 대응 및 장기적인 개발 환경 모두에서 더 크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피해를 피하고 지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식량 및 영양 안보의 목표 달성을 위한 변혁적인 변화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전략 목표 1번에서 달성한 성과를 보다 지속적 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전략 목표 2번은 FFP와 그의 파트너들에게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변화의 궤적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점진적인 결과를 가치 있게 여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본 전략 목표는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지역사회, 민간 부문 및 공공 부문 메커니즘을 지원하고 강화하며 정부 공공기관의 역량, 품질 및 책임을 지원했을 때 식량 및 영양 안보 목표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끌어낼 가능성이 더 높다.

3. 미국의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국내 이해관계자

3.1. 미국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USAID가 이끄는 Feed the Future는 농업, 무역, 투자, 개발 및 정책 자원과 여러 미국 연방 부처 및 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범정부적인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기아를 종식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 단독은 불가능하며, 광범위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에 Feed the Future에서는 민간 부문, 파트너국 정부, 국가 내에서 지역의 파트너, 대학 및 연구 기관, NGO 등 다양한 주체들과 다음과 같이 협력하고 있다.

먼저 USAID는 현장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조정을 주도하여 Feed the Future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Feed the Future의 목표를 지원하는 농업 개발, 영양 및 회복력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또한 USAID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학습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The Department of State)는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국가 안보를 촉진하므로써 기아와 영양실조를 감소시키며, 농업 개발에 있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지역, 국가 단위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Feed the Future에 참여한다.

미국 농무부(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는 역량 강화, 해외 식량 지원, 연구, 시장 및 무역 확대를 위한 과학 기반 솔루션 촉진에 중점을 둔 농업 프로그램으로 Feed the Future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는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세계농업식량안보기금(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 GAFSP), 미주 개발은행(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ADB),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세계은행(World Bank, WB)으로부터 농업 활동을 위해 지원받은 자금을 포함하여, 농업 활동을 위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의 자금을 감독함으로써 Feed the Future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밀레니엄 개발협력 공사(The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는 빈곤과 식량 불안정에 대한 시장 중심의 해결책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들과 협력하여 Feed the Future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MCC는 중요한 기반 시설, 위생 및 영양, 더 강력한 지식재산권 및 개선된 토지 정책, 금융 접근성을 통합하여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3,002만 명 이상의 토지 사용자를 위한 토지권의 공식화부터 8,700만 달러 이상의 농업 및 농촌 대출에 이르기까지, MCC의 투자는 농업인과 농촌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 돕고 있다. 그 외에도 파트너 국가 정부와 미국 민간 부문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미국 상무부, 민간 부문이 개발도상국의 농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DFC), 영양·회복력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과 지역사회 간 역량을 구축하는 평화봉사단(The Peace Corps), 기아와 식량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미국 아프리카 개발 재단(The U.S. Africa Development Foundation, USADF), 작물 성과 지수에 대한 원격 감지 및 계절 예측 과학 및 기술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등이 있다.

3.2. 민간 기업

Feed the Future는 장기적인 식량 안보를 구축하고 파트너 국가가 소유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열망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 필요하다. 기업은 소농의 소득을 증대하고 최대한 성장할 수 있게 도우며, 농업 경제에서 기회를 창출하고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건강한 경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장비, 기술, 자원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공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상호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빈곤, 기아 및 영양 부족을 줄이기 위해 경제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에,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위험요소·책임·결과를 공유하면서 공동 설계, 공동 자금 지원 및 공동 프로젝트 수행할 필요가 있다. Feed the Future는 현장 전문성과 독창성을 겸비한 6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비즈니스 기업과 현지 기업 등을 네트워크로 구축하고 있다.

3.3. NGO

Feed the Future는 전 세계 기아, 빈곤 및 영양 부족 해결을 위해 농민 단체, 지역 비영리 단체, 지역 사회 및 종교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 사회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 및 NGO 파트너는 개발에 대한 미국 정부 전략 및 접근 방식을 구체화하고, Feed the Future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행위자들이 식량 안보, 회복력 및 영양 결정·정책 및 진행 과정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역 조직을 강화하고 시민 사회와 협력하는 것은 지역 소유권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Feed the Future의 투자가 끝난 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개발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3.4. 대학 및 연구기관

Feed the Future는 대학, 연구 센터 및 기관과 협력을 통해 연구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식품 및 농업 개발 위원회(Board for

International Food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BIFAD)는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회로서 미국의 대외원조법(Title XII of the Foreign Assistance Act)에 의해 설립되었다. 본 위원회는 미국의 토지 공여 기관(land-grant institution)의 전문성과 강점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도상국의 식량 안보 개선과 관련된 농업 및 고등 교육 문제에 대해 Feed the Future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 내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센터는 국제 농업연구에 대한 협력을 위하여 작물 생산 개선, 유전자원 보존, 가축 및 동물 건강 보호, 해충과 질병 관리뿐만 아니라 파트너 국가의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솔루션 개발에 힘쓰고 있다.

미국 정부는 파트너 국가의 대학들과 Feed the Future의 파트너 기관인 USAID, USDA, 국립 보건원, 국립 과학 재단과 같은 부서와도 협력할 뿐만 아니라, 미국 에너지부(the U.S. Department of Energy)와는 식량 안보 연구 과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협력하고 있다. 특히 과학적인 우선순위 설정, 연구 및 실행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핵심 파트너는 지역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대학은 국가의 차세대 과학자, 농업인, 입법자 및 기업가를 교육한다. Feed the Future는 이러한 새로운 글로벌 식량 안보 리더 집단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제공을 위해 지역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대학은 연구, 기술 및 혁신을 통해 세계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Feed the Future의 파트너로서, 이러한 대학들은 프로젝트를 실행 및 평가하고 과학 프로그램 및 펠로우십(fellowship)을 관리하며 세계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공유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Feed the Future 혁신 연구실(Innovation Lab)의 네트워크는 미국 최고 대학과 개발도상국 연구기관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농업 및 식량 안보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3.5. 자원봉사단

자원 봉사자는 미국 정부의 Feed the Future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들은 개발 부문의 마지막 종착점인 최빈곤층에게 풀뿌리 수준(grassroots level)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이다. 자원 봉사자들은 기아와 빈곤의 근본 원인을 퇴치하기 위해 의미 있는 관점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F2F(The Farmer-to-Farmer)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농민과 농업 기업 전문가의 생계와 식량 안보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F2F는 기술협력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고 지역 사회, 협동조합, 농업 기업 및 교육 기관에 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평화봉사단(Peace Corps)의 자원봉사자는 개발도상국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업, 환경, 지역 경제 개발,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습득하여 보급하고, 지역사회 및 현지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 자원 봉사자의 경우 환경 보전을 촉진하면서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유해한 살충제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 등을 보급한다.

4. 국내 농업분야 ODA에 대한 시사점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공여국인 미국의 농업부문 ODA의 현황과 전략을 살펴보았다. 대통령 직속으로 농업과 영양안보 이니셔티브인 Feed the Future를 설치하고 10여 년 이상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Feed the Future가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ODA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 중 Goal 1 빈곤 극복, Goal 2 기아 종식, Goal 5 성평등 등의 세 가지 목표를 전략 방향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량안보와 영양개선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빈곤과 식량 안보, 성평등의 이슈를 적용하되, 소농과 여성농민을 주요 수혜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한다. USAID는 2011년 '여성의 농업역량강화 지수(Women's Empowerment in Agriculture Index, WEAI)'를 최초로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고 2012년부터 Feed the Future에 적용해오고 있다(USAID 웹사이트). 성과지표에서도 역량강화, 소득증대 등의 지표에서 성별 분리 통계를 철저히 시행하여 성과관리를 하고 있다.

둘째, ODA의 생태계를 다양하게 확보했다는 것이다. 농업의 가치사슬 단계별로 전문성 있는 파트너를 찾아 다양한 ODA 유형(modality)으로 지원하고 있다. 양자 사업, 봉사단원, 역량강화의 영역에서 민간 부문, 파트너 정부, 지역 파트너, 대학 및 연구 기관, NGO와 협력하고 있다. 미국 대학의 펠로우십(fellowship)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 과학자를 지원함과 동시에 자국 대학의 재정 지원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셋째, Feed the Future를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전략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Future For Peace는 영양, 회복력 및 식량 주도 개발을 위해 Feed the Future를 보완하여 세계 식량안보 달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503.23억 원을 세계 식량계획(WFP)을 통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5개국에 우리나라의 쌀을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인도적 지원 차원이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정책, ODA 성과관리의 전략 방향과 상호보완적으로 체계를 갖추어 진행해야 할 과제를 보여준다.

넷째, 포용적 성장을 위해 USAID를 포함한 자국의 인력 고용과 해외의 우수 인력을 고용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걸쳐 정규직만 3,450명의 일자리를 확보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지속가능성과 포용적 성장의 근간이며, 이를 위해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비단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써, 우리나라의 ODA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 시에도 도입해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이효정. 2014. “미국의 농업부문 ODA 현황과 사례”. 『세계농업』. 166:43-66.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Foreign Assistance: An Introduction to U.S. Programs and Poli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USAID. 2016. *A Food-Secure 2030: A Global Vision & Call to Action*. USAID.
- USAID. 2016. *Feed the Future Progress Report: Growing Prosperity for a Food-Secure Future*. USAID.
- USAID. 2016. *Office of Food For Peace: 2016-2025 Food Assistance and Food Security Strategy*. USAID.
- USAID. 2019. *USAID POLICY FRAMEWORK: Ending the Need for Foreign Assistance summary*. USAID.
- USAID. 2019. *2019 Feed the Future Progress Snapshot*. USAID.
- USAID. 2019. *Feed the Future Indicator Handbook*. USAID.
- USAID. 2020. *Agency Financial Report Fiscal Year 2020: A Foundation Built On Decades Of Global Health Investment*. USAID.
- State Department and USAID. 2010.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State Department and USAID.
- State Department and USAID. 2015.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State Department and USAID.

참고사이트

- USAID(<https://www.usaid.gov>) (검색일: 2021. 9. 29)
- Feed the Future(<https://www.feedthefuture.gov>) (검색일: 2021. 9. 29)
- OECD Data(www.oecd.org/statistics) (검색일: 2021. 9. 2)
- OECD Statistics (www.stats.oecd.org) (검색일: 2021. 9. 2)